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선정



광주 상무지구 5·18자유공원 한켠엔 반달모양의 조형물이 서있다. 그 벽면에는 북두칠성 모양을 이루며 일곱 명의 얼굴을 새긴 동판이 박혀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들불 7열사'로 부른다.

들불은 1978년 설립된 광주지역 최초의 노동자적인 들불야학을 일컫는다. 그들은 80년 5·18항쟁 당시 투사회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열혈청년이었다. 그런데 그후 20년 동안 운명처럼 한 명씩 우리 곁을 떠나더니 그 수가 일곱 명에 이른 것이다.

삶이 팍팍하고 허기질 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삶의 방향과 좌표를 되찾고 확인하곤 한다. 2006년부터는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사들의 이름으로 7개 분야에 걸쳐 매년 들불상을 제정하고 한 사람씩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가 마지막 해로서 오는 5월 중에 문화운동 분야에서 수상자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까 2012년 들불상은 박효선상이 된다.

박효선은 누구인가. 2004년에 KBS 1TV '인물현대사'에서 집중조명을 하기도 했던 터이지만 그는 오월광대 그 자체였

다.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온통 80년 오월에 쏟아부었다. 5·18항쟁 당시 도청지도 부 홍보부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는 도피생활 후 84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한다. 5·18 전문극단으로서 5·18의 진실을 연극으로 만들어 세상을 향해 내놓기 위해서다.

역사의 들불, 박효선과 윤이상

그 중 대표작 '금희의 오월'과 '모란꽃'은 미국과 캐나다 7대 도시를 순회 공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몇의 5월 다큐멘터리를 쓰고 출연했으며 생애 마지막 작품도 오월 비디오영화 '레드 브릭'이다.

박효선이 지향했던 순결한 뜨거움을 생 각할 때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다. 윤이상은 당시 독일에서 5·18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두 편의 작품을 작곡했다. 소프라노와 실내 앙상블을 위한 '밤이여 나뉘어라'와 교향시 '광

주여 영원히'이다.

'광주여 영원히'를 집필하는 동안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한 그는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광주라는 이름은 모든 민중의 심장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1984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제에서 독일 대표작으로 선출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연주되었다.

윤이상의 마지막 작품은 교향시 '화염 속의 천사'와 '에펠로고'였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분신 자살한 학생들의 고귀한 죽음을 잊지 말자는 다짐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는 이 청춘들을 위해서 진혼곡이라도 쓰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199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초연됐고 타계하기 얼마 전 베를린음악제의 일환으로 열린 윤이상 탄생 78주년 기념연주회에서도 연주되었다.

한반도의 모든 집곡의 원인을 민족분단에서 찾은 그는 음악을 통한 평화통일운동에 전력을 다했으며, 고향 통영에서는 그를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박효선과 윤이상은 무엇보다 조국과 오

월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작품을 통해 자신들을 진솔하게 성찰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할 것이다. 이들은 예술과 삶과 철학을 일치시킨 사람들이다.

이들의 선구자적인 예술적 성취 이후 광주 오월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등장했다. '일어서는 사람들', '들불', '화려한 휴가', '연재가 봄날에', '자스민 광주', '알을 품은 도시' 등이 떠오른다. 영화나 오페라, 무용 그리고 많은 문학작품들도 있다. 올해도 오월정신을 다룬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질 것이다.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대표 브랜드공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 곳곳에서 음악인들이 모여 세계적인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을 기억하고 재능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다. 그런데 오월광대 박효선은 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그가 떠난 지 14년이 흘렀는데 그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 기억속에서 멀어졌다.

광주연극인들이 힘을 모아 그를 추모하는 '박효선 연극제'를 열 것을 제안한다.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역사의 들불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정희선

'나는 여검사다' 몇 년 전 한 케이블방송에서 방영했던 미국드라마의 제목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에나베스는 그 태어난 아기,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검사 일과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소위 '슈퍼맘'이다. 드라마 자체의 재미도 좋았을 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라면 언론의 강압이나 정치권력에라도 굴복하지 않고 담담한 사건의 대부분을 승수로 이끌어내는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인 주인공을 보면서 여검사 에나베스의 용기와 열정을 흠입곤 했다.

나는 여검사다

필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은 "여자가 검사를 하면 힘들지 않나요?"라는 질문이다. 영화에서처럼 검사가 직접 법원을 추격하거나 처절한 격투 끝에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영화적 재미를 위해 설정된 것일 뿐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대신 실제 검사 업무의 대부분은 산적한 사건 기록과 씨름하는 것, 그리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한 범인들과 마주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과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사건의 숨겨진 실체와 진실을 파악하고 정의를 찾아내려는 용기인 열정이다.

오히려 필자는 여검사여서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범인 집행관 사무일이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경매 브로커와 입찰자들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주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경매브로커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

하였으나,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검찰에서 감압 수사를 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며 이를 뒤집었다. 피고인을 수사했던 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조사할 때 어떤 강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물론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작은 체구의 여검사와의 이과 대비되게 건강한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독자들도 당시 상황이 이해될 것이다. 결국 여검사와 피고인의 대화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길지 않은 5년여의 검사생활 중 때로는 평범한 사건 속에 숨겨져 있던 비리행위의 단서를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에나베스 검사처럼 뿌듯했던 기억들도 있고,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앞에 고민만 앞서다가 선배, 동료 검사, 수사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했던 기억도 있다. 사건

기고



박옥규

임진년 새해도 어느덧 1달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태를 답습하며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해오던 일부 정치각들을 갈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정당들도 민심을 읽고 새 인물, 새로운 정책과 경향을 마련하며 부심하고 있다. 물론 정치 이념과 형식적인 틀을 바꾸고 사회제도의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하고 진실된 청렴문화를 수립해야 한다

청렴사회로 가야한다

는 것이다.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다. 소위 공복이라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청렴의 의무가 있다.

조선시대에 유학정신과 함께 선비정신의 주요 덕목으로 청렴, 결백, 안빈 등이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청백리로 일컫는 아곡(荻谷) 박수광(朴守良) 선생은 예조좌랑·나주목사·함경도관찰사·오위도총부부총관 등 38년의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할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한 정도로 청렴결백하였다. 그가 수(壽)를 다했지만 운구할 형편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듣고 명종은 관인들로 호송케하고 장사를 치렀고 청백의 상징으로 백비(白碑)를 하사했다고 하니 현재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묘소 앞에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가 서있다.

최근 이곳을 찾는 공직자들의 현장교육이

늘어나는 등 지금 청백리 정신을 배우자는 청렴교육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1인당 2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국민의식이나 시민정신, 준법정신은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공직사회나 각종 기관, 회사나 단체 등 어느 곳이나 부정과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

몇 년전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병풍이나 총풍 사건이 있었다. 1억원 피부습 무무도 수사를 종결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국회 돈봉투 사건은 아직도 명쾌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도나 사건과 같은 선상의 정신지체 여성의 감금방 사건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 자살사건의 예방책은 없는가.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같은 사례는 지금도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실은 어제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청렴 사회로 가야한다. 한류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데 선진국다운 시민의식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올해에 있을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참신하고 공명정대한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초중고 성장기 시절부터 청렴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정직과 진실, 성실과 노력, 희생과 봉사정신 등이 요구된다. 그래서 정규 교과목 이외에도 윤리나 도덕성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과 지성, 질서외식과 준법정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끔은 감내 정신을 길러주고 크기 훈련도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적 체험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명심보감' '경행록'에 "정치를 하는 요체는 겸소함과 부지런함이라(爲政之要 曰公與勤 成家之道 曰儉與勤)."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서명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도로 재정비 사업 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기존의 자전거도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

가령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와 입간판들을 모두 치워야 할 것이다. 새로 만드는 자전거도로 역시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아스콘이 일어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이런 것들도 옳게 시공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걸 지키지 않는데 경우 규제를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할 것이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정동

시설

무너지는 전남농촌 특단대책 필요하다

전남 농가인구가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전남 농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표되는 데다 조만간 한·중FTA 협상도 개시되는 등 개방 파고마저 거셀 판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농가인구는 296만 5000명으로 전년의 306만8000명에 견줘 3.4%나 줄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1990년 108만명에 달했으나 계속 줄어 현재 39만6000명으로, 40만명 이하로 떨어져 농촌 해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전남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5만3000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 전국 36.2%보다 높다.

전남은 이런 고령화로 농업소득도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888만 원으로 전국 1009만8000원

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감소는 전남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실상 농촌이 해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시장개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농촌이 피해 일로를 걷고 있다. 한·미에 이어 한·EU, 한·중 FTA 등 공산품 수출 대가로 농업분야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공급기저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촌 붕괴를 막아낼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역시 정주여건 개선, 영농 규모화를 통한 부농육성 등 기존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 농촌의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10명 중 4명이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니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사립 대보다 국·공립대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지방과 국·공립대를 지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한 결과, 43만4000명이 저소득층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 비율은 수도권 27.5%, 비수도권 34.4%로 지방이 더 높았으며, 지방에서는 대구가 39.1%로 가장 높고, 부산(38.2%)과 전북(37.3%), 광주(36.2%)가 뒤를 이었다. 전남은 34.0%로 전국 16개 시·도 중 8번째라고 한다.

국립대의 저소득층 비율은 40.1%, 공립은 36.9%이며, 사립대는 29.9%로 낮은 편이다. 1년이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 탓에 수도권 내 사립대를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여야가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음에도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들이 최근 내놓은 신학기 등록금 인하율을 보면 이 역시 가관이다. 3~5%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이 대세라는 민심을 살려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100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각 대학들도 과감히 등록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 적립금만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는 일이다.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회는 결코 정상일 수 없다.

無等鼓

커피의 고향은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 고원의 카파(Kaffa) 지방이다. 커피라는 단어도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이곳의 커피는 흥해를 건너 아라비아에 전해졌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17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 구미·일본과 수교에 따라 조선에 부임한 서양 외교관들이 진귀한 음료라며 왕실에 진상한 데서 비롯된다.

고종 황제는 1896년 러시아 공관으로 파견(播擲)했을 때 커피를 맛본 후 거의 매일 즐겼다고 한다. 당시 커피는 모난 설탕 덩어리 속에 커피가루가 들어있는 형태였다. 거무튀튀한 것이

한양 같다고 해서 서양에서 온 탕국이 라는 의미의 '양탕(洋湯)', 영어 발음을 중국식으로 차용한 '가베'라고 불렸다.

인스턴트 커피는 6·25전쟁 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와 보급됐다. 5·16 쿠데타 직후엔 군부가 '수입품인 커피를 자제하자'며 외래품 단속에 나서면서 원시리를 맞기도 했다.

'만인의 안식처'였던 다방이 우후죽순 번성하던 1970~1980년대에는 설탕과 크림을 넣은 커피에 달걀 노른자를 띄운 '모닝커피'가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자판기까지 등장하면서 어디서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최근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광주료며 왕실에 진상한 데서 비롯된다.

커피 열풍



시 동구 총장로 1가 일대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5억 달러, 전문점은 1만개를 넘어서고, 1인당 소비량은 연간 670잔에 이르렀다. '밥값보다 비싼' 커피값도 아깝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는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각종 브랜드 전동차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우려낸 차 한잔에 담긴 맑고 깊은 여유도 덩달아 사라지는 느낌이다. 편리함과 기호성을 가미해 소비자를 사로잡을 참신한 브랜드 육성이 절실한 때다.

/정수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김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무부 2200-621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